

전남 쌀 수도권 급식 납품

함평·영광 청정미 도봉·관악구 초등학교에 ...27억 매출

전국 각급 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함평군과 영광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 서울지역 초등학교 급식을 쌀로 납품된다.

2일 함평군과 영광군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와 관악구가 최근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나비햇살미'를 올해 한해 동안 해당 구청 관내 초등학교들의 급식을 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나비햇살미는 왕우렁이 농법으로 생산된 고품질의 친환경 무농약 쌀로 1년 동안 납품하게 될 물량은 20kg 2만 5천 포, 금액으로는 12억 5천여만 원에 이른다.

함평군은 또한 서울지역 4개 기초단체에 나비햇살미 납품을 제외해 놓은 상태다.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사계절이 사는 집' 쌀 역시 서울 양천구 관내 29개 초등학교 3만1300여명의 무상급식용 쌀로 납품된다. 1년 동안 납품하게 될 물량은 20kg 쌀 3만 포로 금액으로는 14억7000여만 원에 이른다.

정기호 영광군수는 강서구 등에서 개최한 품평회에 직접 참여해 영광 쌀의 우수성과 안정적인 납품, 도농 교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판로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쌀의 우수성과 안정적인 납품, 도농교류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등 판로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물론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사계절이 사는 집"은 서해안 간척지의 기름진 흙과 물, 적당한 해풍을 맞으며 친환경 재배농법(우렁이)으로 계약 재배했으며, 생산·가공·저장·유통을 별도 관리해 영양과 맛만이 풍부하고 품질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쌀의 우수성과 안정적인 납품, 도농교류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등 판로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

전남 서부권



들녘은 봄을 재촉하고...

'슬로(slow) 시티'로 지정된 원도 청산도에서 한 농부가 트랙터 대신 황소로 밭을 갈고 있다. 원도군은 오는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슬로 걷기축제'를 연다. <완도군 제공>

목포대 연구비 수주 400억 돌파

274과제...교원 1인당 1억315만원 성과

목포대가 지난 한해동안 274과제에 연구비 수주액 4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09년도 전국 국립대학 중 서울대 다음 가는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주실적 1억315만원에 이은 괄목할만한 성과다.

주요 연구과제는 59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분야의 실무형 우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광역 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책임교수 김일수)을 비롯해 ▲전남도 조선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책임교수 박종환) 16억원 ▲천일염 및 염생식물의 산업화 연구를 위한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 지원사업(책임교수 김인철) 16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목포대는 최근 호수 무독대, 피지 사우스퍼시픽대와 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무독대와는 교원 및 학생 교류와 학술 정보 교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피지 수바(Suva)에 있는 사우스퍼시픽대와는 신재생에너지, 식품공학, 도서 해양문화 분야의 학술 정보 교환 등 협력을 약속했다.

1968년 설립된 사우스퍼시픽대학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도서 해양문화 및 환경 분야의 연구 실적이 우수한 남태평양 지역의 명문대학이다.

목포대 박종환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수주가 급증한 것은 교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학의 지원 및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3박자가 어우러진 결과"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명인과 함께하는 전통 장담그기”

도농업박물관, 댜장명인 백정자씨 초청 행사

전남도 농업박물관(관장 강석오)은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박물관 야외 초가 마당에서 '전통 장담그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강진 전통장댜 명인 백정자 씨를 초청, 전통 방식대로 재연하고 참가자들이 장담그기 전 과정을 체험한다. 농업박물관은 전통 장류(醬類) 제조과정 등 옛 농경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실시한 '메주 만들기' 체험행사와 연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전통적인 장 담그기는 성스러운과

정갈함을 나타내기 위해 왼 새끼를 꼬아 초가입구 사립문에 금줄을 치고 황토 흙을 뿌린 다음 고사(告祀)를 지낸 후 시작된다.

이후 초가에 내걸어 말려뒀던 메주를 꺼내 솔을 이용해 곰팡이와 먼지 등을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햇볕에 말려 장독에 차곡차곡 넣는 침장(沈藏)을 하고, 적당량의 물에 소금을 충분히 녹여 싱싱한 계란을 띄워 농도를 측정한다 다음 깨끗한 윗물만 메주가 담긴 독에 부어 메주가 뜨도록 한다.

마무리는 장독안에 불붙은 숯과 볏은 고추, 대추 등을 띄우고 망사와 뚜껑을 덮은 다음 잡귀의 침입과 부정을 막기 위해 금줄을 치고 백지로 버선뽕을 오려 거꾸로 붙이면 끝이 난다.

강석오 농업박물관장은 "체험객들이 만든 전통장은 맑은 날 뚜껑을 열어 햇볕에 숙성시켜 된장과 간장을 가린 후 1개월 이상 충분히 더 숙성시키는 등 정성껏 관리를 해주었다가 체험객들의 문이 있을 경우 조금씩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참가 희망자는 이들과 연락처를 전화(061-462-2796), 팩스(061-462-2795), 이메일(mh3812@korea.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061-462-2796)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상청 “3월 바다 물결 높고 안개 짙어”

3월은 짙은 안개로 인한 충돌이나 좌초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여서 항해나 조업에 나서기 전 준비와 안전 점검이 요구된다.

기상청은 "3월 초순에는 바다의 물결이 1m 미만으로 낮았으나 중순과 후순에는 1~2m로 대체로 약간 높겠다"고 2일 밝혔다. 기상청은 이달 초순에는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물결이 낮았으나 중순과 후순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물결이 약간 높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다 수온은 동해연안의 경우 평년에 비해 1~2도 낮겠고, 남해연안은 1도 안팎의 저온 현상이 일겠으며 서해연안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예상 수온은 동해 4~9도, 남해 8~13도, 서해 3~8도 등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구제역 확산 방지’ 봄 축제 줄줄이 취소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남 땅길 매화축제와 신안군 식목일 행사가 취소됐다.

땅길 매화축제 추진위원회는 구제역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자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열기로 한 매화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서부취재본부=박철석기자 dia@

서부취재본부=조원범기자 wncho@

전 북

“송전선로 반대” 주민 강력시위

군산 4개 읍면동 200여명 시청앞 집회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군산~새만금 송전선로(30.6km, 345kV급)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군산시 회현면과 대야면, 옥구읍, 미성동 등 4개 읍면동 주민 200여명은 2일 군산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반대시위를 벌여 나갈 계획이다.

주민들은 "군산시와 한전이 주민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송전선로 공사를 강행하려고 있다"며 "주민과 충분한 협의없이 공사를 시작한다면 각종 소송과 더불어 현장을 봉쇄하겠다"고 주장했다.

대야면 이장 정철석 씨는 "한전이 송전선로 사업을 3년째 끌고 있는데 지상화로 추진했다면 공사가 벌써 끝났을 것"이라며 "한전은 예산난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주민 환경훼손과 주민의 건강피해가 볼 볼 뻔한 데다 재산권 행사 면에서는 계약을 받

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주민은 사실상 이달부터 수시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세를 규합해 나갈 계획이어서 토지 감정평가와 보상협약에 이어 공사착수를 준비 중인 한전과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한전은 주민과의 보상 협의가 여의치 않으면 관례법에 따라 송전선로가 설치될 논과 밭, 임야 등을 강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전은 새만금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905억원을 들여 군산 전력소~새만금변전소 구간을 철탑 92개 등으로 구성된 송전선로를 오는 2012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고압 송전철탄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로 인한 인체유해와 자연경관 훼손, 재산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며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겨울은 봄을 시샘하고...

국립공원 덕유산 설천봉~향적봉~중봉 구간을 찾은 탐방객들이 상고대와 빙하(氷花)를 감상하고 있다. 덕유산 일대는 지난 1일 비가 내린 후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은빛 세계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연필뉴스

8일 전주·18일 군산·31일 익산

3대 도시 ‘릴레이 취업박람회’

전북 3대 거점도시에서 실업률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취업박람회가 열린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8일 오후 1시 전북대 진수당을 시작으로 18일 군산 월명체육관, 31일 익산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 등 총 3회에 걸쳐 '희망전북 2011 그랜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도는 일년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1·4분기 실업률의 효과적 대처와 중소기업 인력난 가중, 대학생들의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취업박람회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전북 지방중소기업청, (재) 전북테크노파크가 주최하고 전주, 익산, 군산고용센터와 잡코리아 전북지사가 주관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채용관, 취업컨설팅관, 부대행사관 등으로 구성

지난해 출산율 소폭 상승

전국 세번째...867명 늘어

지난해 전북도의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소폭 늘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통계청의 잠정 집계결과 2010년 도내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은 1.37명으로 전년 1.28명보다 0.09%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1.22명보다 약간 많은 편이며 증가를 도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출생아 수도 소 1만6100명으로 1만 5233명인 전년보다 867명이 더 태어났다.

이 같은 출산율은 셋째 아이 이상의 증가율이 10.7%로 1985년(10.9%)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다 자녀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대 이하 출산율은 전년보다 하락한 반면 30대 이상의 출산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취재본부=김충철기자 k0765@

서부취재본부=김충철기자 k0765@



단 신

전북 서해안 ‘슬겁질깎지벌레’ 항공방제

전북도는 서해안과 섬 일부에서 발생하는 ‘슬겁질깎지벌레’를 예방하기 위해 2억9000만원을 들여 2일부터 20일까지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항공방제 대상지역은 군산(1000ha)과 고창(1000ha), 부안(400ha) 등 서해안지역 소나무

밀집지역 2400ha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약제는 저독성으로 사람과 가축에는 피해가 없으나 항공방제가 진행되는 외곽 2km 이내 지역에서는 농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 올 노인 일자리사업에 27억3200만원

정읍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사업에 27억3200만원을 투입한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분야인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과 민간분야인 시장형, 인력과견형으로 시행된다. 일자리 사업에는 모두 1782명이 참여하며 하루 3~4시간, 주 3~4일 근무하고 1

인당 월 20만원을 받게 된다.

시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기관을 통해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올바른 의식을 갖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 직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서부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군산시립합창단 오늘 ‘신춘 음악회’

군산시 시립합창단(상임 지휘자 강기성)은 3일 저녁 7시 30분 시민문화관에서 제64회 정기 연주회로 '새봄을 여는 신춘음악회'를 갖는다.

이번 정기연주회 1부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에 나오는 대표적인 중

창곡을 모은 '갈라 콘서트'로 꾸며지며, 2부는 '대관식 미사곡'을 무대에 올린다. 오페라 곡들은 시립합창단 단원들이, 대관식 미사곡은 소프라노 이지연, 알토 서은진, 테너 조효준, 베이스 성공용 씨가 특별출연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 두월천 ‘고향의 강’ 사업 선정

김제시 두월천이 국토해양부 주관의 '고향의 강'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두월천을 생태습지공원 및 옛하천으로 복원, 시민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시는 김산동 과선교에서 월봉동 원평천 합류지점까지 4km 구간을 '두월천 고향의 강' 사업지구로 지정,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